

## 대한기생충학회 발전 20년 약사

### Twenty-year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편집자의 말 : 이 약사는 우리 학회의 창립 20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부회장이신 이순형 교수에게 위임 작성된 것입니다.

#### 연혁

인류 역사를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과 질병과의 끝없는 투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를 통고와 무지와 빈곤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기생충은 그 생태나 감염경로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시사회로부터 현대까지, 또 출생부터 무덤까지 가장 중요한 병인이 되어 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의학이 극도로 발달하였다는 현대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인구를 갖고 있는 기생충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가축이나 동물에 오히려 더 많이 감염되어 있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 오거나 인간의 감염원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생충 감염은 온대지방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전통적 농경사회의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왔었으나 그 치료를 한방이나 민속상약에 소극적으로 의존하여 왔을 뿐, 근세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방침이나 예방대책이 없이 방임되어 왔다. 그래서 기생충질환은 국민병이나 풍토병으로 불리울 정도로 보편화 되었고 실제로 기생충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피해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막심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기생충이 만연하는 비위생지역, 미개후진국으로 쳐우하게 만들어 이에 따른 온갖 불명예와 수모를 감수하여야만 했다.

#### 1. 광복(1945)이전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부분의 현대과학이 그러하듯이 과학으로서의 기생충학의 기

점은 일부를 경유한 서양의 최근세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 되면서 부터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김두중 교수의 한국의학사(탐구당,1966)에 의하면 최근세(1864~1910)에 최초로 나타난 기생충에 관한 기록은 고종44년(1907)에 실시한 광제원의학교 졸업생선발 시험문제 중 내과학에서 장기생충란의 종류와 형상을 기술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생충에 관한 과학논문은 1911년경부터 주로 조선의학회잡지에 발표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임상의학의 한 응용분야가 아닌 본격적인 과학으로서의 기생충학의 시발은 아무래도 小林晴治郎(Kobayashi Seijiro,1884~1969)교수의 내한으로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小林(Kobayashi)교수는 동경제대 동물학과 출신으로 1911년 간흡충 제2중간숙주가 잉어과의 담수어라는 사실과 폐흡충의 제2중간숙주를 담수산 갑각류, 즉 게와 참가재로 확정한 학자로서, 1917년부터 조선총독부병원(현 서울대학교병원 전신) 및 경성의전(현 서울의대 전신)감사로 부임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생충을 연구, 조사하는 한편 기생충학강의를 시작하였다. 역시 현 서울의대의 전신인 경성제대 의학부가 1926년에 창립되면서 小林(Kobayashi)교수는 미생물학교실의 제2강좌였던 기생충학의 교수로 취임하였고 8·15 광복 때까지 재직하면서 400편 이상의 기생충학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비록 일본인이긴 하였지만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생충학 정립에 가장 공로가 컸던 사람 중의 한분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小林(Kobayashi)교수 문하에는 田邊操(Tanabe Misao), 千葉英一(Chibahi Dekazu), 桑原直徳(Kuwabara Naodoku), 古山利雄(Furuyama Tokuo), 沖波實(Okinami Minoru), 長花操(Nagahana Misao)등 거의 일본인 교직원인 대부분이었고 한국인으로는 박태채(James T. Park), 안정조 등 몇 분이 있었다. 박태채는 1937년부터 주로 한국야생동물의 기생흡충류에 관한 연구를 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한 재미 한국인 이세로서 칼리포니아 대학 생물학과 출신이었으며 안정조씨는 집파리의 아메바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였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사망, 또는 중단 등으로 8·15광복 시까지 연구를 계속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광복 전 세브란스의전(현 연세의대 전신)에서의 기생충학은 1925년부터 최동 교수가 8·15까지 2학년 학생에게 주 1시간씩 전 학년에 걸쳐 강의하였다. 최동 교수는 1921년 세브란스의전 졸업 후 도미하여 임상병리를 전공한 분으로 1925년 귀국 후 병리학교실에 재직하면서 임상병리, 법의학과 함께 기생충학분야를 담당하였다.

한국기생충에 관한 문헌목록(주정균 교수편, 문원정판사,1979)에서 보면 8·15광복 시까지 한국인으로서 기생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던 분은 다음과 같다.

강병옥	고달승	고명우	고문용	공병우
권영직	김성환	김용채	김중식	김중원
김준형	김창립	김하등	김홍조	문인주
박영대	박창훈	박봉우	백석훈	송한영
양재	오세남	오한영	유석균	윤일선
이덕열	이만준	이병남	이병훈	이배식
이영춘	이종진	이주식	이희섭	장경
장철성	전종휘	정구충	조동수	조병학
조창호	조한성	최동	홍치업	(가나다순)

그러나 8·15 광복을 맞이하였을 때 한국인으로서 기생충학교실의 정식 교직원으로 남아있던 분은 한분도 없었으며,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기생충학계로 보아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2. 광복부터 사변까지(1945~1950)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염원하던 광복이 이 땅에 찾아왔지만,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한국인이 거의 없었던 기생충학분야는 황무지와 같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만 했다.

1946년 10월 국립서울대학교가 발족되면서 기생충학은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의 제2강좌가 다시 개설되었고 당시 미생물학 주임교수이던 허규 교수의 지도하에 라순영 조교수, 정가영 강사가 이끌어 가기 시작하였다. 1947년에는 서울의대 제1회 졸업생인 서병설 교수 (현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가 조무원으로 기생충학교실에 들어왔다. 이들 기생충학교수진은 서울의대뿐 아니라 전임교수가 없었던 서울대 문리대 및 수의대, 서울여자의과대학(현 고려의대 전신)의 기생충학강의도 분담하였었다. (서병설 교수 진술)

당시 세브란스의대에서는 최동 교수가 학장에 취임한 관계로 일본 경응대학에서 기생충학을 연구하다가 귀국한 한경순 박사가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다.(소진탁 교수 진술)

한경순 박사는 일본에서 좋은 업적을 발표하고 기생충학관계 학술상까지 수상한 분이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1949년 7월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에서 서울의대의 라순영, 정가영, 서병설, 세브란스의대의 한경순, 박희영, 이화대학의 이명순, 기타 제씨 등이 기생충학회 창립모임을 가졌었으며 수차 모임을 통하여 기생충에 관한

문헌정리를 하는 한편 워크샷 개최도 계획하였었다. 그때 생물학계의 석주명, 남태경, 김박등 제씨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병설 교수 진술).

한편 1948년 재단법인으로 발족한 개정농촌위생연구소의 소장 이영춘 박사는 농어민 질병에 기생충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일찍이 깨닫고 소원들로 하여금 기생충의 영향 또는 임상연구 등을 적극 장려하였었다. (소진탁 교수 진술)

이밖에도 1950년 4월에 미국인 기생충학자 Glenn A. Noble이 내한하여 서울의대 및 수의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미군정하의 미군의무진에서 우리나라의 기생충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광복 후의 정치적 혼란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다사다난했던 격동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로지 기생충학의 싹을 키워보려던 이런 모든 선구적 노력이 뜻하지 않았던 6·25 사변의 발발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 3. 6·25 사변 후 학회창립까지 (1950~1958)

6·25사변이라는 미증유의 민족적 비극을 맞이하여 한때 국가의 존립 마저위태하였었고 그야말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매게 되었으니, 이런 시기에 잘 유행하는 기생충질환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몇 분 되지 않았던 기생충학 전문가들은 사변 중 혹은 납북되고 혹은 사망하였거나 남한에 잔존하던 몇 분 마저 사방으로 이산되어, 한동안 기생충감염의 위협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암흑기가 다시 한 번 닥쳐왔고 사변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서울 환도 후 사회가 점차 전화로부터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학원도 정상화를 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54년에 서울의대에는 당시 학장이던 이제구 교수의 배려로 기생충학교실이 독립하게 되었고 서병설 교수가 현재까지 책임을 맡아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대에 기생충학교실이 설치된 것으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또 동년 세브란스의대에서는 소진탁 교수(현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가 기생충학 강의를 맡게 되고, 1957년에 기생충학교실이 창설되면서 역시 소진탁 교수가 현재까지 책임을 맡고 있다.

사변 중 대학이외의 기관에서도 연면히 기생충질환의 연구가 계속되었었는데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당시 군에 참여하였었던 관계로 군진의학의 활약이 현저하였다. 특히 라세진 교수(현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1953년에 창설, 초대 소장으로 있었던 육군 중앙병리연구소(현 중앙의무시험소)에는 기생충학과가 설치되었으며, 이곳에 근무하던 주정균(현 경희의대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 김효규(현 연세대 의료원장), 전세규(현 부산수산대교수)등 제씨는 기생충학에 관한 학술집담회, 초독회를 갖기도

하고 낙동강 유역의 기생충조사를 하기도 하는가 하면 60만 대군의 집단구충을 실시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하였다(주정균 교수 진술). 이 중앙의무시험소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후진들의 주요 군복무지가 되고 있다.

한편 사변 중 개정농촌위생연구소에서도 기생충에 관한 연구, 조사를 활발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북의보 농촌위생, 또는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바 있다(소진탁 교수 진술).

현존하는 대부분의 분과학회가 그러하였듯이 기생충학에 관계되는 연제들도 대한의학협회의 전신인 조선의학협회 제 1회 학술대회(1947년 5월 10일)부터 종합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이렇게 여러 의학 분야의 논문들이 분야별 분류 없이 공동으로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향은 대략 1956년경(제 8회 학술대회)까지 계속되어 왔던 것 같다. 그 후 점차 학술활동이 정착되어가자 제 9회 의협 학술대회부터는 전공분야별로 연제가 분류, 발표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기생충에 관한 논문들이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미생물학, 위생학, 병리학,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및 산부인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발표되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생충관계 연제들을 보면 주로 내과, 외과 등 임상의학에서 흔히 만나는 증례, 임상통계와 일부 역학조사에 국한되어 있었다.

#### 4. 학회창립(1959)

1954년부터 서울의대 및 연세의대에 기생충학강좌가 개설되고 점차 기생충학교실이 독립, 운영됨에 따라 때마침 많은 학자들이 미주지역으로 연구수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기생충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비로소 학회는 창립의 태동을 서두르게 되었다. 기생충감염이 우리나라의 주요 풍토병이라는 실정을 감안하였음은 물론, 그 임상적 중요성과 학문적인 흥미에서도 기생충학을 체계 있게 연구하여야겠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껴, 우선 서병설, 소진탁, 주일, 강석영, 강형용씨 등 5인이 회동하고 29명의 발기인을 선정하였으며, 1958년 12월 23일 드디어 서울의대구내 교수회관에서 발기인총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의 발기인 명단은 제 1표와 같다.

제1표 대한기생충학회 발기인 명단

강석영	강형용	권이혁	김경식	김기홍
김남석	김응진	김이달	서병설	소진탁
양재모	이성관	이병도	이보영	이영춘
이주찬	이주식	임한중	정두환	지홍창
장익진	전중휘	주인호	주일	주정균
한심석	한응수	황종현	홍순국	(가나다순)

이어 발기인총회의 결의에 따라 1959년 1월 15일 서울의대구내 교수회관에서 서병설 교수의 사회와 한심석 임시의장의 주재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소진탁 교수의 창립취지설명, 강형용 박사의 경과보고, 강석영 교수의 회칙초안낭독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한 다음 회칙채택과 임원선출을 마쳤으니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대한기생충학회의 탄생이 된 것이다.

이때 채택된 회칙에 명시된 본 학회의 목적은 「본회는 기생충 및 기생충병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향상 및 해외학계와의 지식교류와 일반사회에 대한 계몽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함」으로 되어있다.

처음으로 선출된 평의원과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장단 및 초대임원은 제 2표와 같다.

**제2표** 초대임원 및 평의원명단

	회장	한심석			
	부회장	이영춘			
	총무부장	강형용			
	학술부장	서병설			
	사업부장	소진탁			
초대임원	총무부위원	강석영	권이혁	김응진	
		이성관	심보성		
학술부위원	이병도	임한중	장두환		
		주일	주정균	홍순국	
사업부위원	이주석	이주찬	장익진		
		한응수	황종현		
초대평의원					
강석영	강형용	권이혁	김응진	서병설	
소진탁	심보성	이성관	이병도	이주석	
이영춘	이주찬	장두환	장익진	임한중	
주일	주정균	한심석	한응수	황종현	
홍순국					

이런 진용으로 출범한 대한기생충학회는 1959년 11월 21일 제 1회 학술대회를 서울의대 A 강의실에서 개최하고 30편의 연계를 발표함으로써 회원들의 왕성한 학구열을 초창기부터 과시한 바 있다. 제 1회 학술대회 이래 매년 1회 또는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금년으로 총 34회의 학술대회를 가졌고 본 학회가 창립한지는 20주년이 되는 것이다.

대한기생충학회는 창립과 동시에 대한의학협회에 가입하여 그 산하학회로 공인되

었으며, 1966년 10월 분과학회협의회가 창립됨에 따라 본 학회는 33개 창립회원학회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이에 정식으로 가입승인을 받은 바 있고 현재까지 분과학회협의회의 간사(이사) 또는 감사 학회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 1967년에는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창립됨에 따라 이에 가입하여 회원단체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다.

창립초인 1959년에 등록하였던 회원수는 60명에 불과하였으나 20개성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회원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244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런 국내외 회세확장 및 국제교류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본 학회의 국제적 위치도 확고해져서 1974년 8월 25일 당시 회장 서병설 교수의 주선으로 국제기생충학회(World Federation of Parasitology; 본부 Bologna, Italy)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 학회 문장(제 1도)은 1974년 당시 제 10대 회장이던 서병설 교수의 도안을 평의원회에서 채택, 제정한 것으로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발간물 및 공문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생충학잡지」의 표지에도 제 12권 1호(1974.6)부터 인쇄되었다. 이 학회문장도안의 설명은 「기생충학잡지」 제 13권 제 2호 113면에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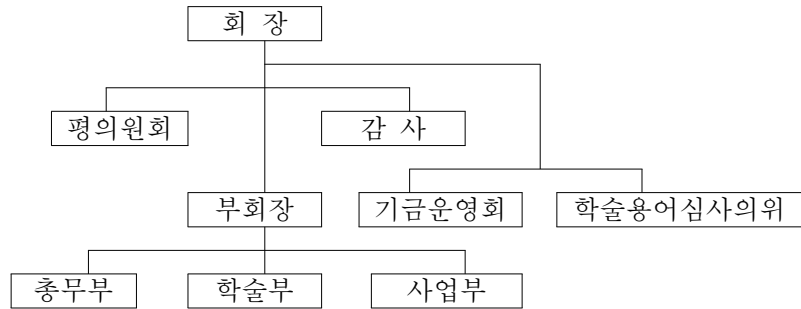
제1도 대한기생충학회 문장

### 기구 및 역대임원

대한기생충학회의 현 기구는 제 3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창립당시에는 학회기구가 회장-부회장 밑에 총무부, 학술부, 사업부, 그리고 평의회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회세가 신장되고 살림이 늘어남에 따라 1974년에는 감사 2명을 두기로 하였다.

제3표 대한기생충학회 기구



초창기 학회운영은 주로 회원들이 내는 회비 및 평의원회비로 충당하여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회활동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은 물론이기에 역대회장 및 임원들은 제약회사를 순방하면서 광고료, 학술상 상금, 학술대회 보조비등 외부의 재원을 찾노라 부심하였던 사실을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기생충박멸협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분과학회협의회에서 학회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잡지용지를 사주는 등 재정적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이런 유동적 재원으로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것이었다.

그래서 학회발전을 기하고 학술활동을 자력으로 영속화하자는 회원들의 강렬한 의지에 따라 1973년부터 학회기금을 적립하기로 결정하고 뜻있는 회원 및 평의원 전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기금의 모금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그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75년에는 기금운영위원회를 정식기구로 설치하였다.

또 학술용어의 적정한 사용과 통일을 기하자는 학회 내 여론이 높아지고, 대한의학협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등에서 의학용어의 심의를 시작함에 보조를 맞추어, 본 학회에서도 1976년부터 학술용어심의위원회를 정식 기구로 설치하고 기생충의 학명표기, 속명제정을 비롯한 학술용어의 심의작업에 착수하였다. 1977년 6월에 1차 심의를 마친 용어를 기생충학 학술용어(I)로서 「기생충학잡지」 제 15권 제 1호에 게재하는 한편 이를 대한의학협회에도 학술용어집 편찬을 위해 제출한 바 있다.

본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단과 학회사업을 관장, 집행하는 각부임원의 임기는 창립당시 1년으로 정하였었는데 1962년부터 2년으로 연장되었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본 학회 특유의 가정적 분위기 및 회원 간의 돈독한 친목으로 인하여 창립 이래 개정된 회칙은 위 조항을 제외하고는 회비인상 및 기구 확장 정도가

있었을 뿐이며 기타 회식 안건은 모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순조로이 해결되어 온 것도 본 학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학회사무실은 회칙에 따라 서울에 두기로 하였는데 편의상 회장 또는 총무부장이 재직하는 기관에 설치하여 왔기 때문에 학회임원이 경질될 때 마다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학술부만은 외국과의 연락, 기관지 등록 인쇄소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기관에 고정시켜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1975년부터 서울의대에 그 위치를 고정하였고 기간본 관리업무도 겸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에 학회 지부를 둘 수 있다는 회칙에 따라 1964년 12월 19일에는 부산시 지부가 처음으로 결성되어 지부장에 주정균 교수(당시 부산의대 기생충학교실 주임교수), 총무·학술위원으로 전세규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그 후 월례학술집담회를 가졌었으나 주교수의 과월 후 와해되고 말았다.

창립 이래 20년 동안 학회의 어려운 살림을 맡아온 역대임원의 명단 및 재임년도는 제 4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4표 대한기생충학회 역대임원

대	연도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부장	학술부장	사업부장
1	1959	한심석	이영춘		강형용	서병설	소진탁
2	1960	한심석	이영춘		강형용	서병설	소진탁
3	1961	이영춘	전종휘		소진탁	주일	이근태
4	1962~1963	전종휘	서병설		주일	소진탁	강형용
5	1964~1965	서병설	소진탁		임한중	주정균	이근태
6	1966~1967	소진탁	이성관		이근태	조무춘	임한중
7	1968~1969	주일	임한중		최원영	노인규	김종환
8	1970~1971	이근태	이병도		김종환	최동익	한형주
9	1972~1973	주정균	최동익		김종환	최원영	한형주
10	1974~1975	서병설	임한중	박승함	이병도	최원영	정봉석
11	1976~1977	임한중	최원영	김동찬	김종환	이준상	조승열
12	1978~1979	최동익	이순형	장두환	민홍기	임경일	조승열

	기금운영위원회	학술용어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병설	소진탁
간사		이순형
위원	소진탁	서병설
	주정균	주정균
	이근태	장두환

## 학 술 대 회

학회의 가장 핵심이 되고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행사가 학술대회임은 말 할 나위도 없거니와, 1959년 11월 21일 제 1회 학술대회가 개최된 이래 1966년(제 8회)까지는 연 1회 추계에 학술대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발표논문수와 내용의 증가추세에 따라 1967년부터 춘계에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금년으로 추계 학술대회는 21회를 치루었으며, 춘계 학술대회는 13회를 가졌다. 성격상 추계 학술대회는 학회의 주가 되는 연구발표회로서 오전부·오후부로 나누어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춘계 학술대회는 오전 중에는 연구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심포지엄, 파넬토의, 특별강연 등 학회 개최지 개업의사들에게 유익한 행사를 겸하는 한편 명승지 관광 등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학회개최지는 형편에 따라 예외는 있었지만 서울과 지방도시를 교대로 택하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기생충학교실이 신설되는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이는 신설된 교실을 예방하고 격려하는 뜻에서였고 또 의대 중 기생충학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 교실설치를 촉구하는 효과를 목표로 한 배려이기도 하였다. 학회창립이래 학술대회 개최상황은 제 5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5표 대한기생충학회 학술대회 개최상황(개최일시 및 장소)

연월일	회수	개최지	개최장소
1959.11.21	1	서울	서울의대 A강의실
1960.11.12	2	서울	서울의대간호학과강당
1961.11.04	3	서울	서울의대간호학과강당
1962.11.24	4	서울	연세의대강당
1963.12.07	5	부산	부산의대강당
1964.11.28	6	서울	서울의대 A강의실
1965.10.29	7	대구	경북의대임상강당
1966.10.03	8	서울	서울의대제3강의실
1967.04.29	1(춘계)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세미나실
1967.11.23	9	개정	농촌위생연구소강당
1968.05.11	2(춘계)	서울	가톨릭의대제3강의실
1968.10.29	10	서울	가톨릭의대제3강의실

1969.04.26	3(춘계)	수원	서울농대농업교육학과소강당
1969.10.31	11	대전	유성만년장호텔회의실
1970.04.25	4(춘계)	서울	서울보건대학원강당
1970.10.07	12	서울	연세의대강당
1971.04.24	5(춘계)	안양	국립가축위생연구소강당
1971.11.06	13	서울	경희대도서관시청각교실
1972.05.06	6(춘계)	춘천	성심여자대학강당
1972.11.04	14	서울	국립의료원소강당
1973.04.28	7(춘계)	온양	온양국제관광호텔회의실
1973.11.03	15	광주	전남의대제3강당
1974.04.27	8(춘계)	대구	경북의대교수회의실
1974.11.09	16	서울	고려의대신관회의실
1975.04.26	9(춘계)	대전	충남의대세미나실
1975.11.08	17	부산	부산의대병원A강의실
1976.04.24	10(춘계)	서울	한국기생충박멸협회회의실
1976.11.06	18	서울	중앙의대2층강의실
1977.04.30	11(춘계)	보은	속리산관광호텔회의실
1977.11.05	19	서울	서울의대2학년강의실
1978.04.29	12(춘계)	수원	서울수의대소강당
1978.11.04	20	대구	경북의대교수회의실
1979.05.02	13(춘계)	원주	연세의대원주분교강의실
1979.11.23	21	서울	서울대병원A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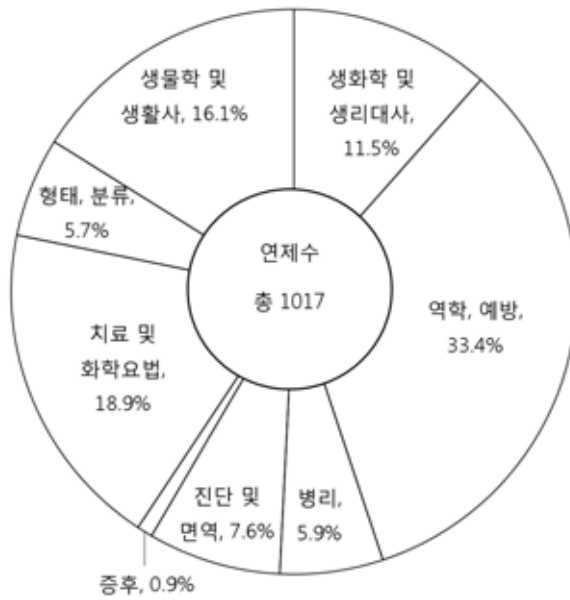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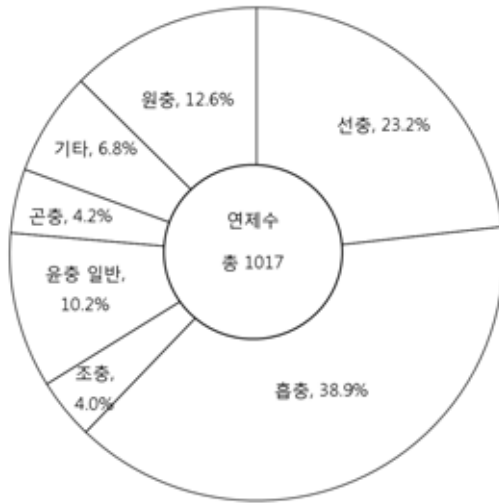
이러한 정기적인 춘·추계학술대회 이외에도 외국의 저명 기생충학자의 방문이나 흥미있는 연구내용,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집담회를 갖고 의견과 토론을 교환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본학회 특유의 가족적 분위기를 양성하여왔다.

학회창립이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총 연제수는 1,017개에 달하며 매년 평균 48.3개의 연제가 발표된 셈이다. 내용도 형태 및 분류, 생물학 및 생활사, 생리대사 및 생화학, 역학, 병인론 및 병리학, 진단 및 면역, 징후학, 치료 및 화학요법 등 다양성을 띠게 되었으며, 기생충의 분류로 볼 때에도 유충학이 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원충학, 곤충학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발표된 총 1,017연제를 분석한 결과는 제 6표, 제 7표 및 제 2도, 제 3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제2도 학술대회발표 연제의 총체분류별 분포

#### 제3도 학술대회 발표연제 연구분야별 분포

#### 제6표 대한기생충학회 학술대회 개최상황(발표연제수 및 특기사항)



연도	발표		연제수		특기사항
	총계	추계	총계	계	
1959			30	(4)	
1960			21	(5)	
1961			33	(7)	
1962			44		
1963			68		
1964			66	(31)	
1965			51		「간디스토마증의 예방과 치료」 토론회
1966			44		

1967	2	40	42	「공인 한국기생충감염율」 토론회 (춘계학회), 「기생충성질환 치료의 최근동향」 토론회(추계학회)
1968	6	31	37	「동물기생충의 인체감염」 토론회(추계학회)
1969	11	48	59	「한국의 가축기생충의 현황」 특별강연(춘계학회)
1970	13	30	43	「마이크로필라리아의 정기출현성」 외 5제 특별강연(춘·추계학회)
1971	13	27	40	「미국기생충학계의 최근동향」 특별강연(추계학회)
1972	9	36(8)	45	「강원도지방의 기생충질환」 토론회(춘계학회)
1973	11	50(23)	61	
1974	15	46(13)	61	
1975	11	44(9)	55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기생충학교육현황」 토론회(춘계학회)
1976	13	51(16)	64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생충관리의 문제점」 심포지엄(춘계학회)
1977	14	45(14)	59	「흡충류 및 그 숙주의 항원성」 특별강연(춘계학회), 「한국의 말레이사상충증」 특별강연(추계학회)
1978	14	38(11)	52	「한국에 있어서의 이질아메바증」 특별강연(추계학회)
1979	7	35(9)	42	
계	139	878	1,017	

( ) : 지상발표수

### 제7표 학술대회에서의 각 기관별 발표연제수

연자소속기관명	발표연제수	%
연세의대	282	23.9
서울의대	218	18.4
가톨릭의대	100	8.4
경북의대	73	6.2
고려의대	69	5.9
보건연구원	54	4.6
육군	50	4.2
부산의대	46	3.9
중앙의대	32	2.7
서울대보건대학원	25	2.1
보사부	22	1.9
부산수산대	21	1.8
방역연구소	18	1.5
충남의대	18	1.5
외국인	18	1.5
경희의대	16	1.4
이화의대	15	1.3
기협	13	1.1
전북농대	12	1.0

서울수의대	9	
제주시 위생시	8	
제주 도립병원	7	
가축위연	6	
영남대	5	
전남의대	4	
한양의대	4	
국립의료원	3	
제일병원	3	
제주대	3	
고대생물과	3	
적십자병원	2	
조선의대	2	
경남대	2	
진주농대	2	
서울산업대	2	
원자력 연구소 외 13개 기관	각 1	
계	1,181	100

이렇듯 기생충학회가 기초의학 본연의 학술활동을 하게 되고 각 대학 기생충학교실 및 전문연구기관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병원의 임상의학 각 분야에서 기생충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의 참여가 점차 퇴조하였으며 자연 기생충병의 임상적 연구는 각 전문분야 학회에서 발표하기에 이른 것은 본 학회로 보아서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 학술지 및 기생충문헌목록 발간

본 학회의 공식 학술기관지인 「기생충학잡지」(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는 제 4대 회장이던 전중휘 교수(현 인제대학장) 및 학술부장이던 소진택 교수의 노력으로 1963년 6월 20일 「대한기생충학회잡지」란 제호로 창간되었다. 창간호는 등색표지에 갈색제호를 특호활자로 인쇄한 것이었고 출판은 동아출판사에서 맡았었는데 여기에는 7편의 원저논문이외에 필경유인물로 만들었던 제 1회(1959), 제 2회(1960), 공판타자유인물로 된 제 3회(1961), 활판인쇄로 된 제 4회(1962)까지의 학술대회 초록집으로 인쇄하여 권말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총 면수는 100면이었다. 창간하던 해에는 우선 연 1회로 발간되었으나 제 2권부터는 현재의 제호로 고치고 체재로 일신하여 연 3회(6월, 11월, 12월) 발행하게 되었다. 즉 제호는 우리의 한글을 세계 각국에 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고유문화를 살리는 취지에서 한글체의 「기생충학잡지」로 고치고 일중 김충현선생의 휘호를 받아

동판을 만든 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표지도 담청색으로 바꾸고 연 2회(1호와 3호)는 원저논문을, 1회(2호)는 학술대회 초록을 게재하게 되었으며 인쇄소도 상업적인 출판사가 아닌 서울대학교출판부로 옮겼다. 연 3회 간행하던 제도는 제 2권(1964)부터 제 11권(1973)까지 계속 되었는데, 다만 제 8권(1970)에서만은 학술대회 초록집을 부록으로 발행하여 연 4회 간행한 예외가 있었으나 제 12권(1974)부터는 연 2회 간행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2호에 통상적으로 실리던 학술대회 초록은 6월에 발행되는 1호 권말에 춘계학회 것을, 그리고 추계학회 초록은 13월에 발행되는 2호의 권말에 첨가하게 되었다.

「기생충학잡지」는 1965년 3월 16일 문공부에 등록되었고(등록번호 제 바-112호), 한때 500부 또는 1,000부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7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인 이래 창간 20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모두 17권(통권 44호)이 발간되어 회원들의 노력의 결정이 국내외에 널리 소개된 바 있다.

그동안 수개처의 편집대행사와 인쇄소를 변경하여 표지색, 활자, 체재등이 여러 번 바뀌는 곡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꾸준히 그 품위를 높여 왔으며, 1974년 제 12권부터는 학회문장이 제정됨에 따라 표지의 목차를 문장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또 1976년(제14권)부터 표지를 크림색 File지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기생충학잡지」는 게재되는 연구논문의 질이나 편집체재, 그림, 사진, 교정, 인쇄에 이르기까지 국제수준급에 올랐다 하겠는데, 이는 이를 주관하는 역대 학술부장은 물론 회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였다.

학회잡지의 배포방식은 1968년 제 6권 제 2호때에 당시 학술부장이던 노인규 교수가 개인별 카드를 작성,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기생충학잡지는 꾸준히 국제적인 연구기관과 도서관 초록잡지 발행처에 발송되어왔다. 이런 노력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ISSN 0023-4001로 정식등록 된 바 있으며 외국인회원 및 미의회도서관과 미국립의과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al Science)을 비롯한 90여 외국주요도서관 및 각 연구기관에 배포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생충학잡지」에 게재된 논문요약이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Excerpta Medica, Helminthological Abstracts, Index Catalogue of Medical & Veterinary Zoology 및 Tropical Disease Bulletin 등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초록지에 소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학자들로 부터 별책 기증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978년부터는 학회평의회에서 지정하는 회원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주요기생충에 관한 연구를 특별강연으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한 다음 그 내용을 「기생

충학잡지」 별호(Supplement)로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1978년도에는 처음으로 서병설 교수의 「한국에 있어서의 말레이사상충증」을 제 16권 별호로 발간하였고 금년도(1979)에는 소진탁 교수의 「한국에 있어서의 이질아메바병」을 발간할 예정이다.

창간 이래 「기생충학잡지」 및 그 부록 발간 상황은 제 8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동안 이 잡지에 게재된 총 250편의 논문을 기생충분류별, 연구분야별, 발표기관별로 분석한 결과는 제 9표, 제 4도 및 제 5도에 나타나 있다. 연평균 권당 게재 논문수는 14.7편이며 이 연차적 변동은 제 6도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제가 논문으로 게재된 백분율은 30.4%가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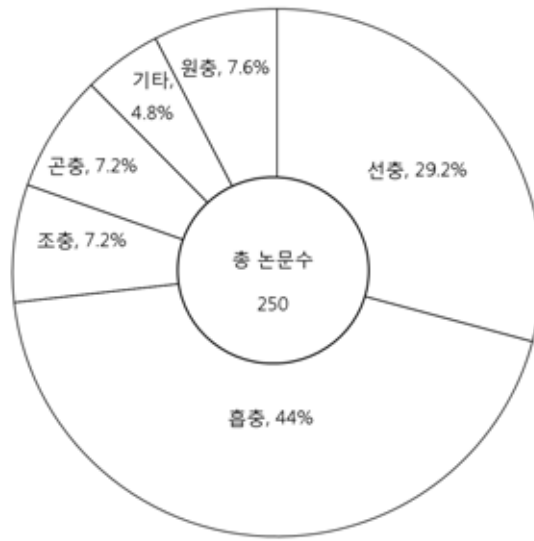
제8표 「기생충학잡지」 및 부록 발간상황

발행 년도	권	호(통전호수)	게재 논문수	인쇄소	특기사항
1963	1	1(1)	7	동아출판사	「대한기생충학회잡지」로 창간. 제 1~4회 학술대회초록수록
1964	2	1(2),2(3),3(4)	21	서울대출판부	「기생충학잡지」로 제호 및 체제변경
1965	3	1(5),2(6),3(7)	15	"	
1966	4	1(8),2(9),3(10)	13	중앙의학사 (편집대행)	「1965 및 1966년도 한국잡지에 발표된 기생충에 관한 문헌의 영문초록수록」
1967	5	1(11),2(12),3(13)	14	"	「1967년 한국잡지에 발표된 기생충에 관한 문헌의 영문초록수록」
1968	6	1(14),2(15),3(16)	9	중앙의학사 서울대출판부	
1969	7	1(17),2(18),3(19)	18	"	「1968 및 1969년도 한국잡지에 발표된 기생충에 관한 문헌의 영문초록수록」
1970	8	1(20),2(21),3(22) , S*	17	서울대출판부 시사문화사	학회초록집은 별호발간
1971	9	1(23),2(24),3(25)	9	광덕사	「1970~1971년도 한국잡지에 발표된 기생충에 관한 문헌의 영문초록수록」
1972	10	1(26),2(27),3(28)	14	최신의학사	
1973	11	1(29),2(30),3(31)	13	"	「한국기생충에 관한 문헌목록발간」
1974	12	1(32),2(33)	16	"	학회문장을 표지에 처음 인쇄, 연 2회간
1975	13	1(34),2(35)	16	서울대출판부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기생충교육현황」 게재
1976	14	1(36),2(37)	18	"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생충관지의 문제점」 게재
1977	15	1(38),2(39)	14	"	「기생충학 학술용어(I)」 게재
1978	16	1(40), S*(41),2(42)	19	"	「한국에 있어서의 말레이사상충증」을 별호로 발간
1979	17	1(43),2(44)	17	"	「대한기생충학회 발전 20년 약사」 게재
	계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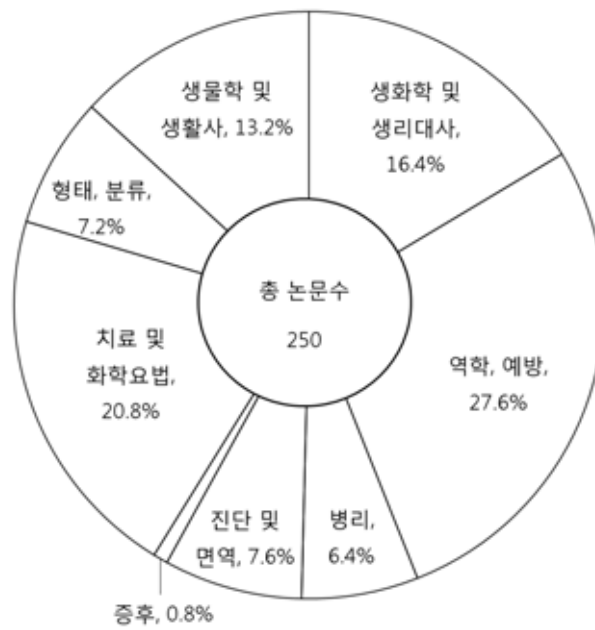
S\* : 별호

제9표 「기생충학잡지」의 각기관별 게재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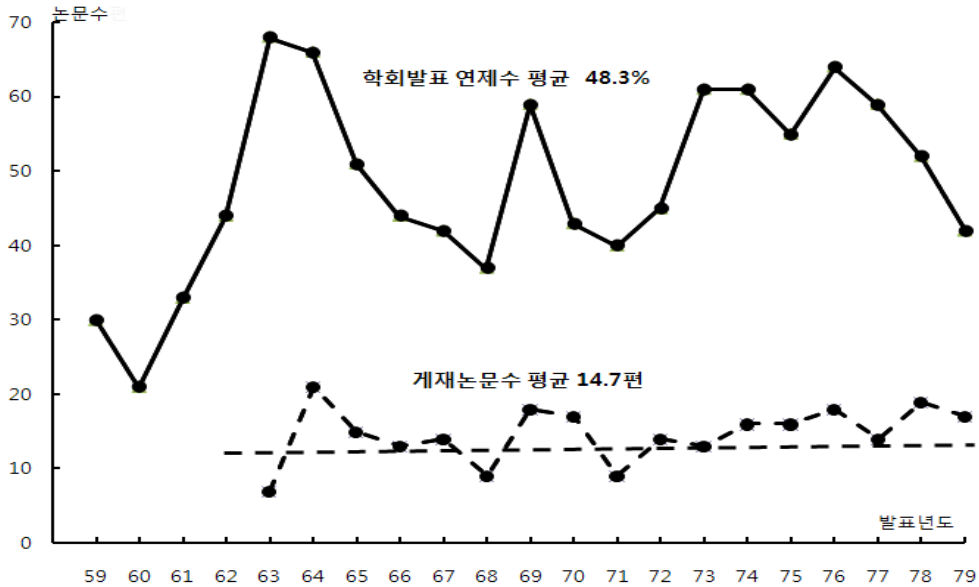
저자소속기관명	게재논문수	%
서울의대	92	33.3
연세의대	38	13.8
경북의대	26	9.4
가톨릭의대	22	8.0
고려의대	16	5.8
중앙의대	16	5.8
서울대보건대학원	13	4.7
경희의대	8	2.9
보사부·보연원	8	2.9
육군	6	2.2
이화의대	3	1.1
부산의대	3	1.1
서울수의대	3	1.1
부산수산대	3	1.1
외국인	3	1.1
고대생물과	2	
경희대생물과	2	
제주위생시	2	
제주대	2	
전북농대	2	
순천향의대	1	
서울사대	1	
진주농대	1	
충남의대	1	
영남대	1	
건국대	1	
계	274	100



제4도 게재논문의 층채분류별 분포



제5도 게재논문의 연구분야별 분포



제6도 「기생충학잡지」 게재논문수 및 학술대회 발표연재수의 연차적변동

학술기관지인 「기생충학잡지」 발간사업 이외에도 회원 상호간 및 국내외 학자들과 지식정보 및 문헌의 교류, 그리고 학술을 통한 친목을 돈독히 하는 뜻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기생충에 관한 모든 문헌을 연도별로 정리, 1961년(당시 회장 이영춘박사, 학술부장 주일 교수)에 「한국기생충에 관한 문헌목록」을 의약계사에서 발행하는 「종합의학」에 반년 간에 걸쳐 연재한 뒤 별책으로 만들어 발간하였다. 이 문헌정리 작업에 수고한 회원은 당시 학술부장이던 주일 교수를 비롯하여 강형용, 강석영, 김종환, 임한중, 소진탁, 서병설 등 제교수였다.

1973년 당시 회장이던 주정균 교수가 다시 이를 보완, 정정하고 1961년 이후에 발표된 문헌을 첨가하여 한국의과학연구소 발행 「한국의과학」 제 5권 제 8호부터 11호까지 4회에 걸쳐 연재한 뒤 부록으로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한 바 있다. 이 같은 문헌수집, 정리 및 목록작성 작업은 8·15, 6·25등 정치적 격동 및 전화로 인하여 관계문헌이 거의 일실된 국내실정에서 많은 노력과 고초 끝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방병·풍토병의 성격을 띤 기생충감염의 특성으로 보아 일반연구에는 물론 지리적 분포나 역학, 증례발생보고에 필수불가결하게 참고하여야 할 귀중한 문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기하지 않을 수 없다.

## 학 술 상

남달리 학구열이 왕성한 본 학회 회원,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기생충학 학도들의 연구의욕을 진작하고 연구논문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지는 취지에서 1962년에 「대 한기생충학회 학술상」을 제정하였다. 이 학술상은 전년도 기생충학회 학술대회에 서 발표하고 「기생충학잡지」 또는 다른 학술잡지에 게재된 우수 논문중 평의원 2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바음 평의원회에서 투표로 선발된 논문저자에게 시상하게 되어 있었다. 제 1회 학술상은 1963년 아주약품(주)의 부상지원으로 서울의대 한형 주박사에게 수여된 이래 매년 1명씩 시상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수상자명단은 제 10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제10표** 학술상 수상자 명단

회수	연도	수상자	논문제목
1	1963	한형주	간흡충의 방사성 탄소 표식 초산염(acetate-1-C <sup>14</sup> ) 이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2	1964	이연호	<i>Paragonimus</i> 의 신제이중간숙주 <i>Palaemon nipponensis</i> 에 대하여
3	1965	최동익	간흡충에 분리한 단백분획(CPE)의 항원성에 관한 연구
4	1966	유재식	페디스토마의 이소기생에 관한 실험적 연구
5	1967	이순형	기생연충류 Lactic Dehydrogenase 활성에 관한 연구
6	1968	조기복	이질아메바의 배양에 관한 실험적 연구
7	1969	김돈균	간흡충의 <sup>32</sup> P uptake에 관한 연구
8	1970	김동찬	폐 및 간디스토마 진단용 항원의 검정법개발연구 1. 페디스토마 진단용 항원의 역가 및 동정을 위한 면역 반응시험
9	1971	고태영	제주도의 사상충증에 관한 연구
10	1972	장두환	췌질에 관한 연구
	1973	해당없음	
	1974	"	
	1975	"	
	1976	"	
11	1977	임경일	Observation on ultrastructure and enzyme activity of free-living amoebae- acid phosphatase and peroxidase
12	1978	조승열	Study 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reinfection of <i>Ascaris lumbricoides</i>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주약품(주)의 부상 지원은 학회사정에 의하여 2회에 그쳤고 제 3회(1965)부터는 부상없이 회장이 수여하는 상장이나 상패로 대신하게 되었는데, 비록 부상이나 상금은 없을지라도 본 학회 회원들로서는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1973년부터 일시 중단되었다가 1977년에 다시 부활하였다. 그동안 명문화된 시상규정이 사무인계 과정에서 분실되어 1979년에 이를 다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 회원현황 및 활동상황

### 1. 회원수

본 학회는 대한의학협회의 1분과학회로 되어있으나, 전공학문의 성격상 의학, 생물학, 수의학등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동등한 회원자격으로 유기적인 상호보완을 하면서 학회와 기생충학 발전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본 학회 회칙에도 회원의 자격을 「본회의 회원은 기생충 및 기생충학을 연구하는 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구성함」이라 하여 제 5조에 규정하고, 기생충학에 관심을 가진 각 분야 인사에게 그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1959년 창립 당시 60명에 불과하던 회원수는 20년이 지난 1979년 현재 244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연도별 본 학회 회원증감추세는 제 11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11표 연도별 대한기생충학회 회원수

연도	회원	연도	회원
1959	60	1971	201
1962	71	1972	207
1964	85	1973	161
1965	128	1974	170
1966	144	1975	181
1967	161	1976	199
1968	166	1977	205
1969	183	1978	239
1970	184	1979	244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생충학을 전공하는 회원수는 기생충질환의 중요성이나 또는

인구수, 의대수 및 보건관계 교육기관수와 그 학생수의 대비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지만 전공인구가 매년 급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보다도 현 회원들의 학문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일기당천임을 감안할 때 대한기생충학회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다.

## 2. 회원들의 저술활동

회원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저술활동도 물론 남 못지않게 활발하였지만, 그보다도 기생충질환이 지역적으로 토착화하여 발생하는 특수성 때문에 교과서 저술활동이 다른 분야보다 특히 많았다.

외국에서 발간되는 교과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에 교과서 간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몇몇 교과서가 우리 회원들의 손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국내에서 간행된 각종 기생충학 교과서는 제 12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12표 국내에서 간행된 기생충학 교과서

저서	발행년도	교과서명	발행사명	발행지
서병설	1961	임상기생충학	인조각	서울
소진탁	1964	기생충병	부민문화사	서울
주일	1967	인체기생충학	동아출판사	서울
이재구	1970	수의기생충학(역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소진탁	1973	한국인의 기생충병	박애출판사	서울
주정균	1976	최신기생충학	형설출판사	서울
서병설	1979	최신임상기생충학	일조각	서울

이런 교과서 이외에도 주정균 교수의 「한국의 인체기생충, 가축기생충 및 의용곤충에 관한 문헌목록집(1977,형설출판사)」, 「한국기생충에 관한 문헌집(1979,문원정판사)」 등을 비롯한 각종 서적이 회원들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 3.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기생충학교육

기생충학은 국내 각 의대를 비롯하여 보건대학원, 수의대, 간호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 보건전문대학 및 일부 생물학과등에서 대부분 본 학회 회원들에 의하여 교육되고 있으나, 정리된 자료가 의대에 한정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의대교육에 있어서 기생충학교육현황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바이다.

우선 각 의과대학의 기생충학교실 설치현황을 보면 1979년 현재 국내 18개 의대 중 기생충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대는 9개 의대에 불과하다. 서울의대에 1954

년에 처음 교실이 창설된 이래 1957년에 연세의대에 교실이 설치되고 이어 1962년에는 부산의대에 육군의 주정균 교수가 예편과 동시 주임교수로 취임하였고 또 가톨릭의대에도 방역연구소(현 보건연구원)에 근무하던 주일 교수가 교실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부산의대는 1966년 주정균 교수의 이직으로 교실이 폐지되었으나, 주교수가 경희의대로 전직함에 따라 1969년에는 경희의대에 교실이 생겨났다.

한편 경북의대에서는 최동익 교수가 예방의학교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생충학 강좌를 담당하여 오다가 1971년에 기생충학교실로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충남의대는 연세의대에 근무하던 김종환 교수가 기생충학교실을 창설하고 취임하였으며, 이화의대에는 연세의대 출신의 민홍기 교수가 1972년에 기생충학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또 고려의대에도 1972년에 서울의대의 임한중 교수가 기생충학교실을 창설하고 주임교수로 취임한 바 있고, 역시 중앙의대에 서울의대의 이순형 교수가 1975년 기생충학교실을 만들고 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각 의대 기생충학교실의 전임교직원수는 전국적으로 27명뿐으로 1개 교실에 평균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셈이며 이를 다시 전국 18개 의대수로 나누면 겨우 1.5명이 된다. 현재 교직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연세의대의 9명이며 경희, 충남, 이화여대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은 셈이다. (제 13표)

제13표 각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의 전임교직원수(1979년 9월 현재)

대학명	교실창설 연도	교직원수					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	
서울의대	1954	1		1		2	4
연세의대	1957	2		2	1	4	9
가톨릭의대	1962		1		1	1	3
부산의대	1962*						0
경희의대	1969	1					1
경북의대	1971	1			1		2
충남의대	1971		1				1
이화의대	1972		1				1
고려의대	1972	1		1		2	4
중앙의대	1975	1			1		2
전남의대							0
조선의대							0
전북의대							0
한양의대							0
순천향의대	1978.3.개교						0
인제의대	1973.3.개교						0

계명대	"					0
영남대	"					0
계		7	3	4	4	9
27						

\* 1966 페이지

그러나 교수·부교수등 상위적 교직원수가 10명인데 비하여 젊은 연령층의 조교수·전임강사·조교의 수가 17명으로, 전국 교수수는 극히 적으나 그 분포는 안정적이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기생충학교실이 없는 의대에서는 기생충학강좌를 병리학교실(전남의대), 임상병리과(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전북의대, 한양의대)에서 관장하고 있거나 또는 외래강사를 초빙(한양의대, 조선의대)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1978년 이후에 신설된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계명대, 영남의대 등에는 학생들이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관계인지 아직 교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14개 의대의 교과과정은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대체로 기생충학 강의 및 실습이 본과 1,2학년에서 실시되고 있다. 빠르게는 1학년 1학기(조선의대)로부터 늦게는 2학년 2학기(고려의대)에 걸쳐 있는데 대부분의 의대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사이에 기생충학을 가르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8개 의대에서는 기생충학을 1학기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3/4년, 또는 1년 사이에 교육하고 있다.

제14표를 보면 기생충학을 주당 1~3시간 강의하여 실습은 주당 1.5~6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각 의대 교과과정에서의 기생충학 학점수는 최고 5학점(중앙의대)에서 최저 2학점의 범위 내에서 배정되어 있으며 전국의대 평균은 3.1학점으로 되어 있다.

제14표 각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과과정 (1979년 현재)

의과대학명	기생충학 학점수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서울의대	3.0			1*(1)		1(2)	6		
연세의대	3.0			1(1)		1(2)	2		
가톨릭의대	3.0			1(2)	3	1(1)			
부산의대	2.0			1(1)	3(1)				
경희의대	3.0					2(2)	4(1)		
경북의대	4.0					2(1)	2(1)	4(2)	
충남의대	2.0			1(1)	4(1)				

이화의대	3.0			2(2)	3(1)		
고려의대	3.5					3(2)	3(1.5)
중앙의대	5.0		2(1)	2(1)	1(1)	2(1)	
전남의대	2.0				2(1)	1.5(1)	
조선의대	4.0	2(2)		2(2)			
전북의대	2.0		1.5(2)	1.5			
한양의대	4.0				2(2)	4(2)	
평균	3.1						

각 의과대학교육에 있어서 교실설치 여부, 전임교직원수, 학점배점, 강의 및 실습 시간 배정 등 기생충학교실 현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며 더구나 이상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기생충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입을 모아 이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의대에 반드시 교실이 설치되기를 갈구하고 있다. 의학교육에 있어서의 기생충학교육의 많은 문제점은 1975년 4월 본 학회 춘계학술대회석상에서 파넬토의로 거론된 바 있고, 이를 「기생충학잡지」 13권 1호에 이미 수록한 바 있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생충학을 계승하고 교육할 후진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 4 연구소 운영

기술한 바와 같이 개정농촌위생연구소나 국립방역연구소에서 배출한 학자들이 본 학회에 참여, 많은 공헌을 하여왔다. 현재에도 국립보건연구원에 기생충과가 있어 김동찬박사가 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리고 몇몇 의대에는 기생충학교실 단독으로, 또는 몇 개 교실과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대의 풍토병연구소, 연세대의 열대의학연구소, 고려의대의 열대풍토병연구소, 가톨릭의대의 기생충병연구소등이다.

서울의대의 풍토병연구소는 1963년에 설립되고 1970년에는 제주도에 서귀포분원을 설치한 바 있다. 연세대의 열대의학연구소는 1968년에 설립되어 1969년부터 국제열대의학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면서 학술잡지를 발간하고 있고 1979년에는 WHO협조연구소로 지정되었다. 고려의대의 열대풍토병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되어 간흡충증의 화학요법제 개발 등 많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가톨릭의대의 기생충병연구소에서는 기생충병의 면역진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진단용 항원도 제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소의 설립이나 운영에 본 학회 회원들이 핵심이 되고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후 기

「역사는 심판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제 이십개 성상의 학회발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키 위한 이 약사를 기술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천학비책임이 더욱 한스러워진다. 각필함에 있어 그 기획, 자료수집, 서술이 적절하였는지, 또는 부당, 부족, 편벽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이다. 일단 근간이 되는 사실을 기술하면 후일에 다시 크게 보정될 것으로 믿기에 감히 인쇄에 돌린다.

학회 동료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강호제현의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또 우리 학회의 앞날에 지나온 20년의 발전보다 더 크고 빠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붓을 놓는다.

(문책 이순형)